

濟州道 地域農業의 構造的 變化에 關한 研究

姜 志 勇*

目 次	
1. 序	
2. 經濟成長과 農業門題	2) 耕地規模
1) 經濟成長에 따른 農業斜陽化의 一般的 理論	3) 耕作規模
2) 韓國農業의 相對的 衰退	4) 作目別 構成
3) 濟州道 地域農業의 相對的 衰退	5) 食糧作物
3. 濟州道 地域農業의 構造的 變化	6) 特用作物
1) 農業人口	7) 柑 橘
	8) 園藝作物
	4. 結 論

1 . 序

우리 나라는 1960年代 초까지만해도 農業人口가 總人口의 58.3%나 차지하고 農業生産이 GNP에 대한 比率이 36.5%나 차지하는 전형적인 農業國이었으나 1960年代 초부터 시작된 輸出 優先의 工業化 政策에 의하여 實質 GNP 成長率이 年平均 10%에 가까운 高度成長을 이룩함으로써 전형적인 農業國에서 탈피하여 先進型 工業國으로 변모하여 왔으나 濟州道는 다른 地域에 비해 地理的 및 工業的 與件이 불리하여 濟州道의 地域經濟는 農業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며 지난 20년 동안 濟州道地域經濟의 發展은 다른 地域과는 달리 農業이 이끌어 왔었다.

오늘날 우리 나라의 農業人口¹⁾는 總人口의 약 23.7%, GNP에서 차지하는 農業의 比重은

* 農科大學 農業經濟學科, 專任講師

1) 1983년 수치임.

1983년 우리나라 농가구는 2백만 가구이고 농업인구는 9,475,400명임.

자료: 경제기획원, 한국통계연감, 1984.

14.8%에 불과하지만 濟州道의 경우는 道民全體人口의 약 45%가 農業人口²⁾이며 道民總生産 중 약 35%가 農業部門이고 감귤 한 作目的 粗收入만해도 1,000억원으로 全體道民所得의 25%를 차지하고 있어 이것만 봐도 農業이 濟州道의 地域經濟에서 차지하는 比重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濟州道 地域農業은 60年代 초까지만해도 田作을 中心으로 하는 食糧作物爲主의 自給的 農業이었으나 그 이후부터 食糧作物爲主의 農業에서 所得이 높은 감귤과 特用作物을 中心으로 하는 利潤追求의 商業的 農業으로 전환하였다. 이것은 濟州道 地域農業이 濟州道 自然條件이 주는 利點을 최대로 활용하면서 位置的으로 不利한 點을 상쇄해 나가고 濟州道만이 生産可能한 特定作物을 生産함으로써 特定時期에 있어서 獨點的 供給을 가능케하여 超過利潤을 얻을 수가 있었고 이러한 過程에서 濟州道 地域農業은 놀랄만한 成長을 이룩하였고 濟州道의 農民들에게 많은 富를 제공하였으며 또한 濟州道의 地域經濟를 이끌어 왔었다.

그러나 80년대에 들어서면서 柑橘은 量的 擴大와 이에따른 諸搬與件의 미흡으로 인하여 價格은 계속 下落勢를 나타내어 柑橘産業은 沈滯하기 시작하였고 特用作物은 農産物 輸入自由化 政策에 의해서 값싼 外國産 農産物이 輸入됨으로 인하여 점차 斜陽化돼가고 있는 實情이다.

濟州道 地域農業을 뒷받치고있는 두 개의 큰 기둥인 柑橘과 特用作物의 衰退는 濟州道 農家收支에 나쁜 영향을 끼쳐서 農家の 戶當 負債가 최근에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實情이다.

한편 濟州道 地域農業은 또다른 轉換期的인 樣相을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柑橘의 主産地인 西歸浦를 中心으로 하는 南部地域에서는 바나나를 비롯한 고급 熱帶 및 亞熱帶作物과 洋蘭 그리고 球根類의 花卉를 재배하는 施設園藝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施設園藝에는 施設에 필요한 많은 資本과 技術蓄積이 있어야만 발전이 가능하고 또한 어떤 亞熱帶作物이 濟州道의 自然條件에 알맞고 바람직한지, 특히 바나나는 언제 收入이 開放될런지 모르는 불안한 상태에서 柑橘의 代替作物로 기대는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안심하고 栽培를 擴大시키기에는 불안한 감이 있다. 그리고 特用作物은 양배추, 당근, 파, 마늘, 양파 등 채소류의 재배로 전환되고는 있으나 이 역시 價格이 暴騰과 暴落을 주기적으로 반복하는 등 價格的인 면에서 安定이 안되고 있는 實情이다.

또한 80년대에 들어서면서 濟州道綜合開發計劃과 觀光開發政策 등으로 우리에게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될 農業이 뒷전으로 밀려 나가고 있으며 이러한 開發政策들은 濟州道 農地의 地價를 昂騰시켜 損害를 보면서 농사를 지어온 生産意慾을 상실한 小農民들로 하여금 조상 전래로 내려온 土地를 팔아 버리도록 誘因했다. 교육 수준이 낮고 특별한 기술이 없는 이러한 小農民들은 土地

2) 濟州道, 「濟州統計年報」, 1983.

를 팔아서 얻은 돈을 非生産的인 곳에 投資를 하거나 혹은 이리 저리 굴리다가 몇 년 안가서 모두 잃어버려서 賃金農業勞動者로 絶落하는 등 社會的 問題도 惹起시키고 있다.

앞으로 濟州道 地域經濟는 분명히 觀光과 娯樂業이 이끌어 나가겠지만 農業과 觀光産業이 均衡關係를 유지하면서 건전한 方向으로 濟州道 地域經濟가 成長하고 發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農業의 發展을 통하여 觀光産業을 成長시키고 觀光産業의 發展을 통하여 農業을 成長시키는 「以農業培養觀光, 以觀光發展農業」의 政策이 반드시 施行되어야만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 자칫 잘못하다가는 觀光開發에 따른 利益이 進정으로 道民의 所得增大와 分配에 기여하지 못하고 일부 사람들에게만 돌아갈 우려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相對的 貧困은 계속 增加하게 될 것이며 濟州道의 地域農業은 계속 衰退해 갈 것이다.

이러한 狀況下에서 濟州道의 農業發展을 위하여 濟州道 地域農業의 構造變化를 살펴 보고 이를 통해서 濟州道 地域農業의 問題들을 추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方案을 提示해 보는 것은 매우 意義가 있는 일이라 하겠다.

2. 經濟成長과 農業問題

1) 經濟成長에 따른 農業斜陽化의 一般的 理論

經濟가 發展함에 따라서 農業은 相對的으로 衰退하여 간다는 사실은 이미 國民經濟와 農業과의 關係에 대한 여러 學者들의 수량적인 研究分析을 통하여 실증된 바 있다.

E.M.Ojala³⁾는 그의 著書 「農業과 經濟發展」(Agricultural and Economic Progress)에서 美國, 英國, 스웨덴 등 3개국의 農業과 國民經濟의 發展에 대한 統計的 分析을 통해서 農業이 社會에 대한 經濟的 厚生이라는 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지적하였다. 즉 發展하는 經濟에 있어서 農業이 經濟的 厚生에 기여하는 比重은 不斷히 低下한다고 하였는데 經濟的 厚生에 대한 農業의 기여를 農業이 社會에 供給한 여러 財貨의 農場價格에 의한 年間的 가치에서 農業以外 部門이 農業生産에 기여한 部分의 農場評價費用部分을 공제한 것으로 보았던 것이다.

Colin Clark⁴⁾에 의하면 그의 著書 「經濟發展의 諸條件」(The Conditions of Economic Progress)에서 經濟的 厚生面에서 經濟的 厚生の 低水準은 第一次産業에의 취업률이 높은 것과

3) E.M. Ojala, Agricultural and Economic Progress, 1956.

4) C. Clark, The Conditions of Economic Progress, London, 1957.

관련이 있으며 經濟的 厚生の 高水準은 第3次産業의 就業率이 높은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으며 雇傭構造面에서도 經濟가 發展함에 따라서 점차로 第1次産業에서 第2次産業으로 이동하고 그 후에는 第3次産業으로 移動한다고 지적했다.

T.W. Schultz⁵⁾도 그의 著書 「農業의 經濟組織」(Economic Organization of Agriculture)에서 經濟發展과 더불어 農業도 相對的으로 확대 發展하고 있으나 非農業部門의 成長率이 相對的으로 보다 높기 때문에 非農業部門에 대비한 農業部門의 比重이 相對的으로 저하해 가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Schultz」가 지적한 가장 큰 이유로서는 經濟發展과 더불어 農産物에 대한 需要가 相對的으로 적어진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즉 經濟發展 및 擴大의 要因이 되는 產品需要의 成長이 非農業의 경우가 훨씬 크다는 것이다. 이런 事實에 대해 「Schultz」는 所得이 增加함에 따라 그 所得 중 食糧을 위해 支出되는 部分은 比例的으로 적어지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食糧用 農産物의 경우가 심하다. 換言하면 食糧을 많이 消費했던 西歐各國의 경우와 같이 農産物需要의 所得彈力性(Income elasticity of demand)이 계속 높지는 않다는 것이다. 오히려 現在의 美國의 경우와 같이 1人當所得이 높은 社會에서는 所得彈力性이 점점 적어지고 있으며 美國의 경우는 農産物需要의 所得彈力性이 대단히 낮으며 거의 0.25 정도로 저하되었다. 그리하여 대부분의 農産物은 소득증가에 反比例하여 下級財로 轉落하고 있는 형편이라고 했다.

이러한 점을 중요시한 그는 産業別 區分을 다음과 같이 所得彈力性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즉, 1次産業은 그 生產品의 所得彈力性이 0.5 이하이고

2次産業은 그 生產品의 所得彈力性이 0.5~1이고

3次産業은 그 生產品의 所得彈力性이 1이상이다.

所得成長에 따라 農産物 특히 食糧에 대한 需要는 相對的으로 減少한다는 것은 일찍이 「Engel's law」라든가 「Zimmerman」 또는 「Wold」의 法則으로서 뒷받침되고 있다.

農業의 相對的 衰退는 경제가 發展함에 따라 非農業部門의 성장률이 농업부문의 성장률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産業構造面에서 본 농업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적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농업이 상대적으로 衰退하여 간다는 중요한 원인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요약하여 볼 수 있다.

① 所得水準이 높아짐에 따라서 農産物에 대한 수요는 상대적으로 적어진다. 즉 所得이 많아짐에 따라 그 所得 가운데 식량을 위하여 지출되는 부분은 상대적으로 적어지며 이것은 農産物 수요의 所得彈力性이 낮아진 데 기인되는 것이다.

5) T.W. Schultz, The Economic Organization of Agriculture, New York, 1953.

② 농업은 生産性이 낮고 농업 생산력의 개선이 느리다. 농업노동은 상대적으로 非移動의이고 농업의 經濟組織은 상대적으로 非伸縮的이며 농업생산에는 일반적으로 收穫遞減의 法則이 작용하고 1인당 소득의 낮은 수준으로 농업부문의 資本蓄積은 부족하며 이와 같은 여러가지 요인으로 말미암아 농업은 生産性的 향상이나 이의 개선을 기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③ 농업은 交易條件에 있어서 언제나 불리한 입장을 면하기가 어렵다. 즉 농산물 가격은 限界生産費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농민전체의 생산비를 보장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市場價格은 競爭價格에 의하여 형성되고 있으므로 농민은 언제나 불리한 거래를 하기 마련이다.

위에서 말한 여러가지 요인으로 말미암아 농업은 相對的으로 衰退하여 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이나, 이러한 농업의 상대적인 쇠퇴가 곧 經濟發展에 있어서 농업의 經濟的인 중요성이 경시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이것은 다만 產業構造面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比重이 상대적으로 적어짐을 뜻하는 것이다.

2) 韓國農業의 相對的 衰退

1962년에 시작된 經濟開發 5年計劃이 4차에 걸쳐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었기 때문에 韓國은 後進國의 굴레를 벗어나 新興工業國으로 급성장했고 經濟構造나 國民生活面에는 현격한 변화가 일어났다.

國民經濟 전체로는 급속한 성장을 했지만 이에 비해 農業部門만은 그간 성장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非農業部門에 비해서 相對的인 성장 비율이 매우 낮다는 것을 <표 1>에서 볼 수 있다. 이를테면 지난 4차에 걸친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수행함으로써 年平均 8.2%의 經濟成長率을 기록할 수 있었으며 그중에서도 鐵工業 部門에서는 年平均 15.7%의 경이적인 비율을 나타냈고 社會間接資本 部門에 있어서도 年平均 7.7%의 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다. 그러나 農水産 部門에 있어서는 그 比率이 年平均 3.7%에 불과했다.

< 표 1 > 국민총생산에 있어서의 산업별 성장률

(단위 : %)

기 간	평 균 성 장 률			
	국민총생산	농 립 수 산	광 공 업	사회간접자본
1962 ~ 1966	7.1	5.7	14.8	4.4
1967 ~ 1971	9.7	1.6	19.9	12.4
1972 ~ 1976	10.2	6.2	18.2	8.5
1977 ~ 1981	5.8	1.2	9.9	5.6
1962~1981평균	8.2	3.7	15.7	7.7

자료 : 경제기획원 한국경제지표 1982.

農林漁業 部門의 성장률이 相對的으로 低位에 있었기 때문에 國民總生産에 占하는 構成비는 매년 저하되어 왔다. <표 2>에서 보면 1968년에 있어서의 比重은 34.2%였는데 그후 13년이 지난 1981년에는 18.3%로 크게 下落했을 뿐만 아니라 매년 減少되는 추세에 있다. 반면 광공업 부문에 있어서는 같은 기간에 16.7%로부터 35.9%로 그 비중은 배 이상 증가되었다. 물론 構成비가 줄었다고 해서 생산액 그 자체가 감소된 것은 아니다. 1968년에 있어서의 農業生産額은 1975년 不變價格으로 환산하여 17,740억원이었는데 1981년의 생산액은 26,925억원이 되었다. 결국 농업 부문에 있어서 生産額은 증가되었지만 非農業 部門에 있어서의 增加額이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는 것을 말해 준다.

<표 2> 산업별 국민총생산 구성비 (1968~1981)

(단위: % 1975년 불변가격기준)

연 도	농림어업	광공업	사회간접자	연 도	농림어업	광공업	사회간접자
1968	34.2	16.7	49.1	1977	22.2	30.6	47.2
1970	30.4	19.5	50.1	1978	19.1	32.9	48.0
1972	27.8	22.3	49.9	1979	19.2	33.8	47.0
1974	25.4	26.6	48.0	1980	15.9	35.6	48.5
1975	24.9	28.0	47.1	1981	18.3	35.9	45.8
1976	24.0	29.5	46.5				

자료: 농수산부 「농림통계연보」

이와 대조적으로 산업별 경제활동인구의 構成比率을 <표 3>에서 보면 1963년에 있어서의 농림어업 부문의 경제활동인구의 비율은 63.1%였는데 1981년에 와서는 34.2%로 감소되었다. 반면 광공업 부문에서는 같은 기간에 8.7%로부터 21.3%로 증가되었다. 이러한 比率을 國民總生産에 기여하게 될 생산액의 비율과 비교해 보면 農林漁業 部門의 경우 34.2%의 인구가 農林漁業에 종사하여 얻어진 생산액은 국민총생산에 18.3%를 점하는 데 불과하다는 셈이다. 다시 말해서 農業은 生産性이 낮다는 것을 말해 준다.

<표 3> 산업별 경제활동인구

(단위: %)

연 도	농림어업	광공업	사회간접자본
1963	63.1	8.7	28.2
1968	52.4	14.0	33.6
1973	50.0	16.3	33.7
1978	38.4	23.2	38.4
1980	34.0	22.6	43.4
1981	34.2	21.3	44.5

자료: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한국통계연감」

우리 나라의 農業生産性은 다른 産業과 비교했을 때 그 伸張率이 낮는데 그 理由는 다음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첫째는 經營規模가 작는데다가 技術水準이 낮은 勞動力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것이다. 우리 나라 農業部門의 경제활동인구 1인당의 耕地面積은 1981년 현재 0.46 ha에 불과하고 農家戶當 耕地面積은 1.08 ha이므로 세계에서 가장 작은 규모를 가진 나라 중의 하나가 된다. 농촌에 過剩勞動力이 있고 높은 人口壓力下에 있는 영세경영으로서는 勞動生産性을 높이는 데 어려움이 있다. 거기에다 耕作을 위주로 하는 營農이 되고 있으므로 勞動需要에 계절성이 있고 농번기에는 不足되나 農閑期에는 과잉 상태에 있다. 농업에 취업했을 때의 所得이 낮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過剩勞動力은 다른 산업에 流出되어야 하겠으나 개개 농가의 입장에서 보면 必要的 勞動力이라 생각되기 쉽고 농가의 低所得을 과잉노동력이 아닌 農業에 따르는 속성으로 생각하게 한다.

둘째, 資本의 不足과 주어진 資源의 活用에 있어서의 不充分을 생각할 수 있다. 영세경영이 되고 있는 농가로서는 收益性이 낮고 농업이 지니는 不安定性 때문에 보다 合理的인 경영을 영위할 수 있는 資本을 蓄積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랜 세월을 두고 資金이 축적되었다 해도 이는 子女教育費에 충당되고, 교육을 받은 가족은 非農業으로 流出되므로 농업부문에 축적된 자금이 농업 외로 도피하는 결과가 된다. 농가로서 資金의 여유가 없어 영농에 필요한 생산자재를 필요한 時期에 필요한 수량을 투입할 수 없다는 것은 농업에 있어서의 생산성을 낮게 하는 하나의 이유가 되는 것이다.

셋째, 農民의 生産技術 또는 知的 水準이 낮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農民의 知識水準이 낮을 때 經濟의 發展에 따르는 農業經營의 發展을 위한 技術의 受容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農民에 있어 기술수준 또는 知識水準이 낮다는 것은 농민으로 하여금 다른 산업으로의 이동을 저해하는 이유가 될 수 있다.

네째, 농업은 非農業部門과는 다르게 生物를 對象으로 하는 유기적 생산이기 때문에 農業生産을 市場事情에 맞추어 調整하기 어렵다는 데에 있다.

이와 같은 諸要因, 다시 말해서 勞動力의 과잉, 經營規模의 협소, 資本의 不足, 技術水準의 低位, 有機的 生産 등이라는 우리 나라 농업이 지니는 構造的 特質 때문에 發展되는 정도는 비농업에 비해 相對的으로 衰退하고 있는 것이며 時間이 지난다 해도 自然히 改善될 수는 없는 일이며 따라서 政府의 農業政策支援이 必要하게 되는 것이다.

3) 濟州道地域農業의 相對的 衰退

우리 經濟의 高度成長은 製造業部門의 伸張과 社會間接資本의 확충 등 工業化에 의존하였음에

반해 濟州道の 發展은 工業化가 아닌 農業部門의 成長과 觀光業等 3次産業部門의 發展에 힘입어 왔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農業部門은 特用作物과 柑橘 등의 斜陽化로 인하여 成長率이 다른 産業에 비해 낮아지고 있는 實情이다.

다음 <표 4>에 의하면 農·林·漁業部門은 1962-66년 동안 11.4%, 1967-71년 동안 1.5%, 1976-76년 동안 17.4%, 1976-1981년 동안 22.2%, 成長하여 지난 1962-81년 동안 年平均 13.1%의 成長率을 나타냈지만 동 기간 동안 鑛工業部門은 21.0%, 社會間接資本 및 서비스는 18.6%의 成長率을 나타내어 성장률에 있어서 농·임업부문을 앞서고 있다.

1972-76년의 第3次 經濟開發計劃期間중에는 농·림·어업이 17.4%나 成長하여 광·공업의 12.0%, 사회간접자본 및 서비스의 11.0% 보다 成長率이 앞섰으나 1977-1981의 第4次 經濟開發期間중에는 농·림·어업부문의 성장률이 22.2%로 광공업의 52.6%, 사회간접자본 및 서비스의 36.9% 成長率 보다 뒤지고 있다.

<표 4> 산업별 성장률

(단위: %)

	1962~1966	1967~1971	1971~1976	1976~1981	1962~1981 연 평균
농 립 어 업	11.4	1.5	17.4	22.2	13.1
광 공 업	4.2	15.0	12.0	52.6	21.0
사회간접자본및서비스	11.7	14.9	11.0	36.7	18.6
總 G R P	10.8	7.3	14.1	30.2	15.6

자료: 제주도청 통계과

따라서 농업부문의 성장률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면서 濟州道の 産業構造에서 농·림·어업부문이 차지하는 비중도 점차 줄어들고 있다. 다음 <표 5>에서 보면 1961년에는 농·림·어업 부문이 63.1%, 광공업부문이 10.1%, 사회간접자본 및 서비스업이 26.8%로 농·림·어업부문이 濟州道 産業構造에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나 점차 그 비중이 줄어들기 시작하여 1984년에는 농·림·어업부문이 濟州道 産業構造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1.3%에 불과했다. 한편 사회간접자본 및 서비스업의 비중은 63.6%로 크게 伸張되었다. 그리고 농·림·어업부문에서도 농업은 1981년에 농림어업부문의 산업구성비 36.3%중에서 32.8%를 차지했고 임업이 1.3%, 어업이 2.2%를 각각 차지했으나 1984년에는 농림어업부문의 구성비 33.1% 중에서 농업부문만이 23.1%로 무려 9.7%나 감소했고 반면 임업부문은 4.3%로 3%, 어업부문은 5.7%로 3.4%나 각각 증가했다.

〈 표 5 〉 산업구조 (구성비)

(단위 : %)

	1961	1966	1971	1976	1981	1984	1984 (전국)
농 립 어 업	63.1	64.7	49.3	49.8	(농업32.8) 36.3(임업 1.3) (어업 2.2)	(농업23.1) 33.1(임업 4.3) (어업 5.7)	13.4
광 공 업	10.1	7.4	8.0	7.7	5.3	3.3	30.0
사회간접자본 및 서비스업	26.8	27.9	42.7	42.5	58.4	63.6	56.6

자료 : 제주도청 통계과

産業構造에서 農業이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減少함에 따라 農業人口도 계속 줄어들기 시작했다. 다음 〈 표 6 〉에서 처럼 産業別 就業者構成比를 보면 1967년에는 전체 취업자중 농림어업부문이 80.5%를 차지했으나 1971년을 고비로 해서 점차 감소하기 시작하여 1984년에는 60.7%를 나타냈으며 이중 농업인구만은 41.1%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회간접자본 및 서비스업종에 종사하는 취업자는 1967년에 17.8%에서 1984년에는 36.3%로 크게 증가하였다.

〈 표 6 〉 산업별 취업자 구성

(단위 : %)

	1967	1971	1976	1981	1984	1984(전국)
농 립 어 업	80.5	81.3	79.4	71.8	60.7	27.1
광 공 업	1.7	3.1	3.3	3.1	3.0	24.2
사회간접자본 및 서비스업	17.8	15.6	17.3	25.1	36.3	48.7
합 계	100	100	100	100	100	100

자료 : 주민소득연보

觀光産業 등 3次産業이 크게 伸張은 했지만 農業部門의 相對的 衰退로 인하여 濟州道民 1人當 GRD 全國水準도 1976년 까지만해도 경남, 경기, 충북 다음으로 4位였으나 그 후 柑橘과 特用作物의 斜陽化와 다른 지역의 工業發展에 따라 濟州道民의 1人當 GRD 水準은 1981년에는 10位까지 처지게 되 다. (〈 표 7 〉 참조)

이렇게 濟州道地域經濟에서도 農業은 經濟의 成長과 더불어 점차 相對的으로 衰退해 가고 있다.

〈표 7〉 1人當 GRD 전국수준 비교

	1967	1969	1972	1976	1980	1981	1984
계 주	6 위 (124 \$)	4 위 (180 \$)	4 위 (254 \$)	4 위 (588 \$)	8 위 (1274 \$)	10 위 (1401 \$)	7 위 (1579 \$)
경 기	1	1	2	2	3	4	5
강 원	2	6	8	8	5	6	8
충 북	3	3	3	3	6	9	9
충 남	4	7	6	5	9	11	11
전 북	8	8	5	9	10	12	12
전 남	9	9	9	7	7	8	10
경 북	5	5	7	6	4	5	4
경 남	7	2	1	1	1	2	2
부 산	-	-	-	-	2	3	3
대 구	-	-	-	-	-	7	6
인 천	-	-	-	-	-	1	1

자료 : 주민소득연보, 제주도청 통계과 (1967 ~ 1984 서울 제외, 1967 ~ 1979 부산 제외)

3. 濟州道地域農業의 構造的 變化

農業構造⁶⁾는 농업에 있어서의 生産的 社會的 諸 關係에서 오는 經濟構造를 뜻하는 것이므로 농업에 있어서의 基本的 生産手段인 土地所有構造를 기점으로 한 經營構造로 集約할 수 있다.

濟州道地域農業의 構造變化도 土地所有生産, 經營 그리고 所得의 여러가지 構造的 側面에서 綜合的으로 變化過程을 살펴보아야 하지만 실제 統計資料의 利用이 制限的인 關係로 몇가지 側面만을 對象으로 分析하고자 한다.

6) 廣義의 農業構造

- 土地所有構造 (所有制度, 保有規模, 保有樣態, 所有階層構成)
- 農業經營構造 (經營規模, 經營組織, 資本構成, 階層構成)
- 農業生産構造 (生産組織, 生産技術, 生産性格差, 流通組織)
- 農業所得構造 (生産性, 所得水準, 所得分布, 生産部門別 地域別 所得分布)
(渡邊兵力著, 「農業構造의 改善」)

1) 農業人口

道内 總人口中 農家人口가 차지하는 比重을 <표 8>에서 보며는 1960년에 82.2% 1970년에 67.8% 1976년에 59.4% 1981년에 44.4% 1983년에는 41.1%로 계속 낮아지고 있다. 농가호수도 1973년 57,909가구를 기점으로해서 점차 줄어들어 1983년 45,330가구에 머물고 있으며 가구당 농가인구도 1960년의 4.7명에서 1983년 4.3명으로 감소했다.

<표 8> 농 가 인 구

연 도	농 가 호 수	농 가 인 구	도내 총인구에 대한 농가인구 비율	가구당 농가인구
1960	49,723	231,617	82.2 %	4.7
1965	58,427	261,064	80.0 %	4.5
1970	55,558	248,000	67.8 %	4.5
1973	57,909	265,710	68.1 %	4.6
1976	54,650	249,768	59.4 %	4.6
1979	53,162	233,526	51.1 %	4.4
1981	47,380	207,710	44.4 %	4.4
1982	46,260	202,680	42.8 %	4.4
1983	45,330	196,530	41.1 %	4.3

자료 : 제주통계연보

이것을 다시 年少인구(14세 미만), 생산연령 인구(15~60세) 및 노년인구(60세 이상)의 구성비로 나누어 보면 <표 9>에서 같이 1983년 현재 전체 농가인구 중 年少인구의 구성비는 28.3%, 생산연령인구의 구성비는 61.3%, 노년인구의 구성비는 10.4%로 각각 나타났다.

<표 9> 연령별 농가인구

	남	여	계	14세미만 (%)	14~19세 (%)	20~49세 (%)	50~59세 (%)	60세 이상
1973	125,309	140,401	265,710 (100%)	99,764 (37.5%)	36,976 (13.9%)	84,488 (31.8%)	20,190 (7.6%)	24,292 (9.1%)
1976	118,215	131,553	249,768 (100%)	91,117 (36.5%)	37,627 (15.1%)	81,733 (32.7%)	15,960 (6.4%)	23,331 (9.3%)
1979	111,705	211,821	233,526 (100%)	78,004 (33.4%)	38,570 (16.5%)	76,857 (32.9%)	17,327 (7.4%)	22,368 (9.6%)
1981	98,520	109,190	207,710 (100%)	64,810 (31.2%)	35,730 (17.2%)	69,180 (33.3%)	17,490 (8.4%)	20,500 (9.9%)
1982	96,160	106,520	202,680 (100%)	61,140 (30.2%)	34,680 (17.1%)	67,940 (33.5%)	18,490 (9.1%)	20,430 (10.1%)
1983	93,260	103,270	196,530 (100%)	55,520 (28.3%)	34,920 (17.8%)	66,450 (33.8%)	19,150 (9.7%)	20,490 (10.4%)

자료 : 제주도 통계연보

한편 우리 나라의 농가인구의 年少인구·생산연령인구 및 노년인구의 구성비⁷⁾는 각기 35.7%, 58.7% 및 5.6%로써 제주도 농가인구와 비교해보면 年少인구의 구성비는 제주도가 7.4「포인트」가 낮고 생산연령인구의 구성비는 2.6「포인트」가 높으며 노년인구의 구성비는 4.8「포인트」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를 다시 도시지역인구의 구성비⁸⁾ 32.5%, 65.0% 및 2.5%와 비교해 보면 제주도 농가인구에서 생산연령 인구의 구성비가 상대적으로 낮고 노령인구 구성비가 크게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83년 현재 농업인구 196,530명 중 남자 인구가 93,260명 여자인구가 103,270명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10,010명이 더 많다.

濟州道の 農業人口가 계속 減少하고는 있지만 아직도 濟州道 總人口의 41.1%를 차지하고 있어 이는 우리 나라 總人口중 農業人口의 비율 23.7% 보다는 매우 높아 아직도 濟州道는 많은 農業人口를 보유하고 있는 實情이다.

2) 耕地面積

濟州道の 耕地面積은 <표 10>에서 처럼 1961년에는 43.64 ha였으나 그 후 조금씩 증가하여 1979년에는 50.14 ha까지 증가했으나 1980년 부터 耕地面積은 서서히 減少하기 시작하여 1983년 현재는 49.74 ha에 이르고 있다. 家口當 耕地面積은 1961년의 0.859 ha에서 1983년에는 1.073 ha로 다소 증가했지만 여전히 1 ha정도의 零細性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實情이나 우리 나라 農家口當 耕地面積⁹⁾ 0.9 ha보다는 다소 耕地面積이 넓은 실정이다.

<표 10> 경 지 면 적

	경 지 면 적			가구당 경지면적
	계	답	전	
1961	43,600 ha	1,100 ha	42,500 ha	0.859 a
1966	49,100	1,100	48,000	0.867
1971	49,800	1,000	43,800	0.870
1976	49,900	1,100	48,800	0.913
1979	50,110	1,003	49,107	1003.3
1981	50,064	1,204	48,860	1031
1983	49,743	1,073	48,668	1073

자료: 제주도 통계연보

7) 季刊京郷, 思想과 政策, 1985. 봄호. p. 59.

8) 「前掲書」 p. 59

9) 경제기획원, 한국통계연감 1984

3) 耕作規模

耕作規模別로 보며는 < 표 11 >에서 처럼 1961년에는 0.5ha 미만의 농가가 전체농가의 43.4%를 차지하였고 1ha이상의 농가가 27.6%에 불과했으나 1983년 현재는 0.5ha 미만의 농가는 38.4%로 감소했고 1ha이상의 농가는 29.4%로 다소 증가하였다. < 표 11 >을 통해서 경작규모별 農家戶數 構成比의 추이를 살펴보면 우선 주목할 수 있는 것은 0.5ha미만의 농가가 1976년까지는 계속 감소해오다가 1976이후 부터 다시 증가하고 있는 현상이다.

< 표 11 > 경작규모별 농가호수 (단위 : 천가구, %)

	0.3ha 미만	0.3~0.5ha	0.5~1ha	1~2ha	2~3ha	3ha 이상	기타 및 임금노동	계
1961	10.7 (21.1)	11.3 (22.3)	14.7 (29.0)	10.8 (21.3)	3.2 (6.3)	-	-	50.7 (100%)
1966	9.5 (16.8)	11.6 (20.5)	17.2 (30.3)	15.3 (27.0)	2.9 (5.1)	0.2 (0.3)	-	56.7 (100%)
1971	10.7 (18.7)	10.3 (18.0)	17.3 (30.2)	15.6 (27.2)	2.7 (4.7)	0.7 (1.2)	-	57.3 (100%)
1976	5.7 (10.4)	7.0 (12.8)	21.5 (39.3)	14.0 (25.6)	2.1 (3.9)	0.5 (0.9)	3.9 (7.1)	54.7 (100%)
1979	7.1 (13.3)	10.0 (18.8)	17.1 (32.1)	13.5 (25.4)	2.2 (4.1)	0.5 (0.3)	2.8 (5.3)	53.2 (100%)
1981	6.8 (14.3)	9.5 (20.0)	16.3 (34.4)	12.5 (26.4)	1.8 (3.8)	0.5 (1.1)	-	47.4 (100%)
1983	7.8 (17.2)	9.6 (21.2)	14.6 (32.2)	10.9 (24.1)	1.9 (4.2)	0.5 (1.1)	-	45.3 (100%)

자료 : 제주도 통계연보

이것은 다음 < 표 12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국의 경작규모별 農家戶數 構成比에서 0.5ha 미만의 농가가 급격히 줄어들어 1960년의 42.9%에서 1975년의 29.6%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감소해오다가 70년대 후반 이후부터는 더 이상 감소하지 않고 전체 농가의 30%내외에 머무르고 있는 것과는 70년대 중반까지는 비슷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으나 7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반대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0.5ha 미만의 농가는 제주도가 38.4% (1983년 기준)로 전국의 29.0% (1982년 기준)보다 매우 높게 나타났다.

둘째, 0.5~1ha층은 약간의 기복을 보이기는 하나 그 비율이 계속 증가하여 1961년에 29.0%이던 것이 1971년에는 30.2% 1983년에는 32.2%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전국적인 경향과 비슷하며 이 규모의 농가구성비는 제주도가 32.2%로 전국의 36.3%보다 적다.

셋째, 1.0ha~2ha 층은 1971년까지는 계속 증가하여 1961년의 21.3%에서 1971년에는 27.2%까지 증가했으나 그후부터는 감소하기 시작하여 1976년의 25.6%에서 1983년에는 24.1%

〈표 12〉 경작규모별 농가 구성비(전국)

구분 연도	0.5ha 미만	0.5~1.0ha	1.0~2.0ha	2.0ha 이상	합계
1960	42.9	30.1	20.7	6.3	100
1966	35.2	32.2	25.8	6.8	100
1971	33.8	32.8	26.9	6.5	100
1976	30.8	36.5	26.4	6.2	100
1979	33.6	35.3	25.7	5.3	100
1981	29.8	36.6	26.8	5.3	100
1982	29.0	36.3	27.4	5.3	100

자료: 농수산부, 농림통계연보

도 감소했다. 1.0~2ha층의 전국적인 경향은 1960년의 20.7%에서 점차로 증가하여 1982년에는 27.4%로의 증가를 보이고 있는 것과는 다소 다른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네째, 2.0ha이상의 大規模農家は 원래 전체 농가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되지 않아 일부에 불과하였는데 그나마 더욱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 1961년에는 6.3%에서 1983년에는 5.3%로 줄어들고 있다. 이러한 제주도의 현상은 전국적 현상과 똑같은 양상을 보여 주고 있다.

그리하여 전체적으로 볼 때 경작규모별 농가구성의 변동추이는 0.5ha 미만의 극히 영세한 농가는 1961~1976년까지 감소하다가 그 이후부터 증가하고 있고 0.5~1ha의 농가는 1961~76년까지 그리고 1~2ha의 농가는 1961~71년까지 계속 증가하다가 그 이후부터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고 2ha 이상은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1961~71년까지의 감귤가격 상승과 그 이후부터의 가격의 정체 또는 하락 그리고 76년 이후 제주도 特用作物의 斜陽化하고 깊은 관련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4) 作目別 構成

제주도의 농업은 1961년 부터 作目別 構成에 있어서 뚜렷한 變化를 나타내고 있다. 첫째는 食糧作物 栽培面積의 급격한 減少現象이다. 〈표 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61년에는 食糧作物 栽培面積이 道內 總栽培面積 67,592ha의 94.1%를 차지했지만 계속 감소하여 1970년에는 70.0%로, 그리고 1982년에는 46.7%로 급격히 栽培面積이 감소하고 있으며, 둘째로는 特用作物 栽培面積 構成比率이 1961년에 3.7%에서 1971년에는 18.1%로 1977년에는 27.0%로까지 계속 증가해오다가 1977년을 고비로 해서 栽培面積은 감소하기 시작하여 1982년 현재는 21.5%

< 표 13 > 작목별 재배면적

구분 연도	합 계		식량작물		특용작물		감 골		채 소 류	
	면 적 ha	구성비 %	면 적 ha	구성비 %	면 적 ha	구성비 %	면 적	구성비 %	면 적 ha	구성비 %
1961	57,592	100	63,180	94.1	2,498	3.7	232	0.3	1,282	1.9
1971	71,187	100	49,874	70.0	12,857	18.1	5,840	8.2	2,616	3.7
1977	76,014	100	40,803	53.7	20,584	27.0	11,710	15.4	2,958	3.9
1980	70,853	100	39,145	55.2	14,641	20.7	14,095	19.9	4,384	6.2
1981	71,258	100	39,333	55.2	13,009	18.3	14,764	20.7	5,697	8
1982	71,884	100	33,569	46.7	15,468	21.5	15,500	21.6	8,294	11.5

자료: 제주도 통계연보

로 그 構成比가 떨어졌다. 세째는 채소류 栽培面積 構成比率은 1961년 1.9%에서 1972년 3.7%로 1982년에는 11.5%까지 栽培面積이 계속 증가되고 있으며 네째, 감골의 경우도 栽培面積 構成比가 1961년에는 겨우 0.3%에 불과했으나 1971년에는 8.2%, 1982년에는 21.6%로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

작目別 生産量 < 표 14 > 에서 보면 栽培面積의 長期 추세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1961년 總生産량의 85.8%를 占하던 식량작물 生産량이 1971년에는 66.1%로, 1982년에는 31.7%로 뚝 떨어진 반면 1961년에 生産량의 構成비가 0.3%에 불과했던 감골은 1971년에는 3.6%, 1982년에는 47.9%로 占有比率이 매우 높아졌다. 이 기간 동안 감골의 生産량은 무려 833.5배나 증가하였다. 1981년에는 식량작물 生産량과 감골의 生産량이 비슷하다가 1982년 부터는 감골 한 作目的 生産량이 미곡, 맥류, 두류, 서류 등 식량작물을 모두 합한 生産량 보다도 많아지게 되었다. 특용작물 生産량은 1970年代 후반부터 줄어들고 있으며 채소류는 가격에 따라서 生産량이 변동은 있지만 生産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 표 14 > 작목별 생산량

구분 연도	합 계		식량작물		특용작물		감 골		채 소 류	
	生産량 %	구성비 %	生産량 %	구성비 %	生産량	구성비	生産량	구성비	生産량	구성비
1961	141,462	100	121,313	85.8	4,400	3.1	388	0.3	15,361	10.9
1971	166,120	100	109,797	66.1	14,404	8.7	5,971	3.6	35,948	21.6
1981	649,509	100	268,669	41.4	19,717	3.0	247,780	38.1	113,343	17
1982	674,570	100	213,742	31.7	21,736	3.2	323,420	47.9	115,672	17.2

자료: 제주도 통계연보

5) 食糧作物

식량작물 재배면적을 < 표 15 >에서 살펴보면 米穀, 麥類, 雜穀의 재배면적은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반면 豆類, 薯類는 지속적인 증가를 해오다 1970년대말부터는 그 栽培面積도 역시 점차 감소해가고 있다. 1961년의 米穀 재배면적은 3,232 ha에서 1971년에는 1,874 ha로 1983년에는 1,762 ha로 지난 20년간 1,470 ha나 줄어들었으며 동기간 동안 麥類는 15,163 ha, 雜穀은 18,274 ha나 재배면적이 줄어들었다. 그러나 豆類와 薯類의 재배면적은 각각 5,270 ha와 812ha로 늘어났다. 이러한 식량작물의 감소원인은 식량작물보다 수익성이 높은 經濟作物로 代替돼가고 있기 때문이며 本道 換金作物의 하나인 고구마는 1961~79년까지는 계속 그 재배면적이 증가

< 표 15 > 식량작물 재배면적

구분 연도	합 계		미 곡		맥 류		잡 곡		두 류		서 류	
	면적	지수	면적	지수	면적	지수	면적	지수	면적	지수	면적	지수
1961	63,180	100	3,232	100	29,288	100	19,332	100	3,928	100	7,400	100
1965	74,246	117.5	5,000	154.7	31,948	109.1	16,944	87.6	5,238	133.4	15,116	204.3
1971	49,874	78.9	1,874	58.0	21,920	74.8	7,265	37.6	9,010	229.4	9,805	132.5
1973	49,218	77.9	2,440	75.5	20,601	70.3	4,997	25.8	12,108	308.2	9,071	122.6
1976	44,931	71.1	2,441	75.5	16,887	57.7	3,086	16.0	10,959	279.0	11,555	156.1
1979	43,797	69.3	1,410	43.6	19,325	66.0	935	4.8	9,282	236.3	12,846	173.6
1981	39,333	62.3	1,770	54.8	15,592	53.2	1,530	7.9	9,553	243.2	10,889	147.1
1983	34,355	54.3	1,762	54.5	14,125	48.2	1,058	5.5	9,198	234.2	8,212	111

자료: 제주도 통계연보

하였으나 70년대말부터 酒精原料인 당밀과 타피오카를 外國으로부터 수입하게 됨으로 인해서 고구마의 수요는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하였다가 酒精 1%을 생산하기 위한 당밀의 原料費를 100으로 한다면 타피오카는 120, 생고구마는 187, 절간고구마는 무려 256의 비용이 든다. 앞으로 계속 값싼 외국산 당밀과 타피오카가 수입될 전망이고 보면 앞으로의 고구마 재배면적은 도내 澱粉原料의 自給規模정도까지 계속 감소할 전망이다. 豆類도 역시 수입 콩 때문에 많은 타격을 받고 있지만 국내 소비량의 꾸준한 증가로 인하여 앞으로 濟州道 豆類의 재배면적은 현상유지가 예상된다.

식량작물 재배면적의 지속적인 감소에도 불구하고 생산량은 < 표 16 >에서처럼 오히려 1961년에 115,300 t에서 1971년에는 109,797 t, 1982년에는 213,742 t으로 오히려 증가한 것은 신품종의 보급과 영농기술의 향상, 소비량의 증대 등에 힘입어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계속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표 16〉 식량작물생산량

	합 계		미 곡		맥 류		잡 곡		두 류		서 류	
	생산량	지수	생산량	지수	생산량	지수	생산량	지수	생산량	지수	생산량	지수
1961	56,352	100	3,590	100	29,714	100	11,320	100	4,455	100	68,623	100
1965	78,729	139.7	6,530	181.9	43,596	146.7	8,249	72.9	5,238	117.6	209,802	307
1971	109,797	194.8	3,211	89	47,137	158.6	5,295	46.8	4,228	95.0	49,927	72.8
1973	102,087	181.1	5,085	141.6	35,744	120.3	5,250	46.4	6,807	152.8	49,202	71.7
1976	331,372	588.0	4,730	131.8	42,264	142.2	4,457	39.4	10,651	239.1	269,271	392.4
1979	349,708	620.6	3,943	109.8	54,544	183.6	1,057	9.3	9,035	202.8	281,129	409.7
1981	268,669	21	4,384	122.1	42,748	143.9	1,624	14.3	6,182	138.8	213,731	311.5
1983	229,830	407.8	4,529	126.2	30,311	102.0	894	7.9	4,969	111.5	189,127	275.6

자료 : 제주도 통계연보

1984년도 主穀의 道内自給率은 다음 〈표 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도내 생산량이 36,180%, 도내 반입량이 46,600%, 도내 반출량이 5,263%, 도내 소비량은 77,517%으로 46.7%를 나타냈으며 지난 1977년의 자급률 63.2%¹⁰⁾ 보다 무려 16.5「포인트」나 떨어져 해마다 자급률이 減少될 것으로 사료된다.

〈표 17〉 主穀의 도내 자급현황 (1984년)

단위 : %, %

	도내생산량 (A)	도내반입량 (B)	도내반출량 (C)	도내소비량 (A+B-C)	자 급 도 (%) (A/A+B-C)
미 곡	4,480	46,600	3	51,077	
맥 류	21,600	-	1,550	20,050	
두 류	10,100	-	3,710	6,390	
합 계	36,180	46,600	5,263	77,517	46.7

자료 : 제주도 주요행정요람, 1985

6) 特用作物

제주도의 특용작물로는 油菜, 참깨, 목화, 들깨 등을 들수 있는데 이 중에서 목화나 들깨는 극히 생산이 미미한 실정이고 油菜와 참깨가 주종이 되고 있다.

10) 한국은행 제주지점, 제주경제의 실태와 전망, 1978, p. 32.

특용작물 재배면적을 < 표 18 >에서 보면 1961년의 2,498 ha에서 1976년의 17,569 ha로 7배로 증가하였으나 그 후부터 점차 재배면적이 감소하여 1983년에는 17,314 ha로 재배면적이 줄어 들었다.

특용작물 생산량 역시 < 표 19 >에서와 같이 1976년의 생산량 19,815 %을 기점으로 점차 생산량이 감소되고 있는 실정이다.

< 표 18 > 특 용 작 물 재 배 면 적

구분 연도	합 계		유 채		참 깨		기 타	
	면 적	구성비	면 적	구성비	면 적	구성비	면 적	구성비
1961	2,498	100	1,199	100	68	100	1,231	100
1965	5,103	204.2	4,793	399.7	98	144.1	212	17.2
1971	12,857	514.7	10,593	883.4	2,222	3,267.6	42	3.4
1973	14,074	563.4	9,635	803.6	4,347	6,392.6	92	7.4
1976	17,659	707.0	12,795	1,067.1	4,836	7,111.8	28	2.2
1979	16,302	652.6	8,930	744.8	7,281	10,707.3	91	7.3
1981	15,060	602.9	9,141	762.3	5,754	8,461.8	165	363.9
1983	17,314	693.1	9,924	829.7	7,260	10,676.4	130	10.6

자료: 제주도 통계연보

< 표 19 > 특 용 작 물 생 산 량

구분 연도	합 계		유 채		참 깨		기 타	
	생 산 량	구성비	생 산 량	구성비	생 산 량	구성비	생 산 량	구성비
1961	4,400	100	899	100	21	100	3,480	100
1965	5,873	133.4	4,108	457.0	51	242.9	1,714	49.2
1971	14,403	327.3	13,395	1,490.0	974	4,638.0	34	977.0
1973	14,259	324.0	12,597	1,401.2	1,598	7,609.5	64	1.8
1976	19,815	450.3	17,228	1,916.3	2,543	12,109.5	44	1.3
1979	19,742	448.7	17,761	1,975.6	1,912	9,104.8	69	2.0
1981	19,718	448.1	16,952	1,885.7	2,632	12,533.3	134	3.9
1983	17,217	391.2	13,432	1,494.1	3,665	17,452.3	120	3.4

자료: 제주도 통계연보

油菜는 재배면적이 1961년에는 1,199 ha에 불과했으나 1971년에는 10,593 ha로 1976년에는 12,795 ha로 61년을 기준하여 10배 이상 재배면적이 증가하다가 1976년을 고비로해서 재배면적이 감소 추세에 있으며 1983년에는 9,924 ha로 줄어들었다. 그리고 생산량도 1961년의 899 %

에서 1971년 13,395%으로 증가되고 1979년에는 17,761%까지 증가하였으나 그 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여 1983년에는 13,432%에 머물고 있다.

油菜의 재배면적이 급격히 증가한 원인은, 油菜는 耐寒力이 弱하기 때문에 本道와 全南 一部地域에서만 재배가 가능하고 高級食用油의 原料로 쓰이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1977년에 정부가 발표한 輸入自由化 擴大措置에 따라 「勳·植物기름」이 輸入自由化 對象品目에 포함됨으로써 油菜販路에 커다란 暗影을 던지게 되었고 가격이 급락하면서 換金作物로서의 位置를 내놓아 春期開花時 觀光資源으로 전락하는 作物이 될 지경에 이르렀다. 앞으로 油菜는 재배면적이 계속 감소할 것이다.

참깨는 재배면적이 1961년에는 68 ha에 불과했지만 그 후 재배면적이 급격히 확대되어 1983년 현재는 7,260 ha로 1961년을 기준하여 재배면적이 106 배나 신장되었고 생산량 역시 1961년의 21%에서 1983년에는 3,665%로 174 배나 증가하였다.

7) 柑 橘

경제성장에 따른 국민소득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식품소비수준도 고급화 내지 다양화되어 肉類와 靑果類 등 成長農産物에 대한 消費需要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需要增加要因과 더불어 各種栽培技術의 향상과 農漁村所得增大特別事業에 의한 支援擴大, 外國산 오렌지 수입 억제 등 一連의 增産誘因에 자극되어 柑橘은 크게 成長 發展하여 왔다.

감귤의 재배면적은 < 표 20 >에서 처럼 1961년의 257 ha에서 1983년에는 16,975 ha로 무려 66 배가량 늘어났으며 생산량 역시 1961년의 399%에서 345,900%로 866 배로 크게 증가하였다.

< 표 20 > 연도별 감귤 생산 동향

구 분 연 도	면 적 (ha)	10 a 당 수 량 (kg)	생 산 량 (%)
1961	257	155	399
1966	659	1,125	1,722
1970	5,901	87	5,141
1972	8,302	148	11,851
1975	9,258	728	67,392
1976	9,902	436	43,136
1977	10,388	980	101,816
1978	10,321	1,042	107,535
1979	10,967	1,326	145,457
1980	12,205	1,323	161,434
1981	14,764	1,681	247,780
1982	15,500	2,091	323,420
1983	16,975	2,037	345,900

자료: 제주도 통계연보

감귤의 年度別 生産動向을 보면 재배면적은 1980년에 총 12,205 ha로서 1970년 對比 2.1배 늘어났고 生産量은 1970년의 5,141 ㄱ에서 1980년에 161,434 ㄱ으로 31.4배 증가함으로써 전체 果實生産量 중 감귤의 比重은 다음 <표 21>에서와 같이 1970년의 1.2%에서 19.4%로 높아졌다. 이는 지난 10年間 果實 중 가장 팔목할 만한 신장을 보인 것이다. 이와 같은 감귤생산량의 급증은 과실이 主宗이었던 사과의 경우 老朽果木 및 在來品種의 新規代替過程에서 單位當收量이 低下되고 있는 것과는 달리 新規造成한 감귤果園의 成果樹齡 到來로 最近 單位當收量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즉 지난 10年間 사과의 段收는 약 10% 줄어든 反面 감귤의 段收는 약 15배 늘어났다.

<표 21> 과 실 생 산 추 이

(단위: ㄱ, %)

구분 품목	1960		1970		1980		C/A (배)	C/B (배)
	수량(A)	구성비	수량(B)	구성비	수량(C)	구성비		
사과	104,052	62.5	212,041	50.1	410,047	49.2	3.9	1.9
배	26,822	16.1	52,041	12.3	59,570	7.2	2.2	1.1
복숭아	13,759	8.3	78,098	18.4	88,692	10.6	3.3	1.1
포도	3,622	2.2	34,145	8.1	56,764	6.8	15.7	1.7
감귤	190	0.2	5,141	1.2	161,434	19.4	849.7	31.4
감	13,543	8.1	30,310	7.2	31,837	3.8	2.4	1.1
기타	4,383	2.6	11,484	2.7	24,737	3.0	5.6	2.2
계	166,371	100	423,260	100	833,081	100	20.0	2.0

자료: 농수산부 농림통계연보

濟州道の 감귤生産은 대체로 국내수요에 充當되어 왔으며 그 수요량의 대부분은 生食用으로 消費되어 왔다. 최근에는 과실음료의 수요증가에 따라 감귤濃縮液의 생산이 擴大되고 있어 加工用 需要比重이 높아지는 반면 생식용 수요비중은 낮아지고 있다. 다음 <표 22>에서와 같이 1975년에는 국내 생산량의 10%정도가 주스, 통조림 등으로 加工되었으나 1980년말 현재 국내생산량의 16.9%에 해당하는 274 ㄱ이 加工됨으로써 약 83%가 生食用으로 消費되었다.

<표 22> 한국·일본의 감귤소비량 비교

(단위: 千ㄱ)

구분	한국			일본		
	생식용	가공용	계	생식용	가공용	계
1975	60	7	67	2,884	762	3,646
1977	98	4	102	2,547	971	3,518
1980	124	27	161	2,044	1,149	3,193

자료: 농수산부 특작국

감귤의 1人當 消費量推移를 보면 < 표 23 >에서와 같이 1970년의 0.3g에서 1980년에 7.8g으로 10년동안 무려 26배의 增加를 나타냈다. 이는 전체과실의 소비증가율 61.5%, 사과 62.2%, 포도 16.7%에 비하면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그런데 1980년의 1人當 소비량 7.8g은 사과소비량 23.2g의 33.6%에 불과하고 日本의 감귤소비량 39.6g과 비교하더라도 19.7%의 水準으로 매우 낮은 형편이다. 그러나 감귤의 所得彈力值¹¹⁾(Income elasticity of demand)가 0.81로 사과의 0.61에 비해 높게 나타남으로써 所得의 증가와 더불어 감귤消費는 꾸준히 增加할 것으로 예상된다.

< 표 23 > 연도별 과실소비량 추이

(단위: g)

품목 연도	사과	감귤	복숭아	배	기타	계
1970	14.3	0.3	4.9	3.0	5.0	27.5
1973	18.4	1.6	5.0	2.7	6.5	34.2
1975	19.2	4.3	5.0	2.9	7.1	38.5
1977	21.2	5.9	4.2	3.6	7.1	42.0
1979	25.6	7.1	5.3	3.2	6.6	47.7
1980	23.2	7.8	5.0	2.8	5.6	44.4

자료: 농수산부 「식품수급표」, 1人 1日當 공급량 기준임.

감귤價格은 최근 생산량의 급증에 따라 他果實에 비해 상대적으로 하락추세를 보여왔다. 다음 < 표 24 >에서 처럼 감귤의 經常價格(農家販賣價格)은 1971년에 實當(3.75kg) 1,318원에서 1980년에는 1,411원으로 7.1% 상승하였으나 全國都賣物價指數(1975=100)로 디플레이트한 1980년의 實質價格은 1971년의 2,890원에 비해 21.7%水準까지 하락한 셈이다. 한편 사과의 경상가격은 1971년에 5實當 1,194원에서 1980년에 4,971원으로 10年 동안 4배 상승하였으며 1980년의 實質價格도 1971년의 2,618원 수준에 달하고 있다.

또한 1975년기준 1980년의 都賣價格指數는 180.0으로 농산물 중 가장 낮고 全體果實指數408.9, 사과指數 276.3에도 크게 못 미치는 水準이다. 이로써 감귤은 1970년 이전에 상대적으로 높은 價格上昇率을 보였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1970년 이후에는 他果實에 비해 實質價格이 하락추세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1) 농협중앙회 조사부 (1979)

〈표 24〉 연도별 감귤농가판매가격 동향

(단위: 원)

연도별	감		귤		사		과	
	경상가격	지 수	실질가격	지 수	경상가격	지 수	실질가격	지 수
1971	1,318	100.0	2,890	100.0	1,194	100.0	2,618	100
1972	1,365	103.6	2,829	97.9	1,315	90.8	2,528	96.6
1973	1,193	90.5	2,146	74.3	1,445	121.0	2,599	99.3
1974	1,063	80.7	1,344	46.5	2,159	180.8	2,729	104.2
1975	1,263	95.8	1,263	43.7	2,642	221.3	2,642	100.9
1976	1,227	93.1	1,095	37.9	3,008	251.9	2,683	102.5
1977	1,779	135.0	1,456	50.4	3,473	290.9	2,842	108.6
1978	1,461	110.8	1,070	37.0	3,944	330.3	2,889	110.4
1979	1,381	104.8	852	29.5	4,692	393.0	2,895	110.6
1980	1,411	107.1	627	21.7	4,971	416.3	2,207	84.3

註: 농가판매가격임 (감귤은 은주 중품 3.75 kg당, 사과는 국광 중품 18.75 kg당)
 자료: 농협중앙회 「농촌물가 총람」

8) 園藝作物

濟州道の 園藝作物은 제주도가 갖고 있는 溫暖한 기후조건과 特用作物의 斜陽化에 따른 代替作物으로서 그리고 經濟가 發展하고 所得이 높아짐에 따라 園藝作物에 대한 需要增加에 힘입어 제주도의 園藝作物은 계속 성장해 나가고 있다.

(1) 菜蔬園藝

채소류의 재배면적은 다음 <표 25> 에서와 같이 1961년의 1,282 ha에서 1970년의 2,003 ha로 1983년에는 5,374 ha로 늘어났고 수확량 역시 1961년의 15,361 %에서 1970년에 24,238 %로 1983년에는 134,144 %로 증가하였다.

채소류 중에서 濟州道の 農家經濟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는 당근, 마늘, 양파, 양배추, 무우, 배추, 파 등을 들 수 있다. 당근의 경우 다음 <표 26, 27>에서 처럼 1970년의 재배면적이 4.2ha에 불과했었는데 1983년에는 1,328 ha로 316배나 늘어났고 생산량 역시 1970년의 29 %에서 1983년에는 25,232 %로 870배나 증가되었다. 마늘 재배면적은 1961년의 137ha에서 1983년에는 1,250 ha로 9배정도 늘어났으며 생산량은 1961년에 1,041 %에서 1983년 12,395 %로 증가했다. 양파와 양배추 재배면적도 1961년에 125 ha, 15 ha에서 1983년에는 707 ha와 519 ha로 각각 14배와 47배로 늘어났으며 배추와 무우 재배면적도 219 ha와 264 ha에서 1983년에는 418 ha

와 879 ha로 각각 늘어났다.

이들 品目들은 처음에는 一定地域에서 栽培해오다가 점차 道 全域으로 擴散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채소류는 자연조건에 의한 作況豐凶이 심하고 作況豐凶여하여 따라서 價格形成이 매우 민감하게 작용함으로 危險負擔率이 매우 높고 流通構造 역시 多段化 되어 있다. 그리고 週期的인 過剩生産이 招來됨으로써 價格下落과 大量腐敗를 가져와 生産農家에 적지않은 損害를 끼치기도 하였다.

〈표 25〉 채소류 생산량 연도별 추이 (단위: ha, %)

구분 연도	합 계		
	면적	10 a 당	수량
1961	1,282	1,198	15,361
1965	1,561	-	27,031
1970	2,003	1,210	24,230
1973	2,600	1,481	38,505
1976	2,581	1,518	39,180
1979	2,887	2,727	78,725
1981	3,800	2,982	113,344
1982	4,114	2,811	115,672
1983	5,374	2,496	134,144

자료: 제주도 통계연보

〈표 26〉 채소류 생산량 (I)

구분 연도	배 추			무 우			양 배 추		
	면적	10 a 당	수량	면적	10 a 당	수량	면적	10 a 당	수량
1961	219	989	2,167	264	2,026	4,990	15	3,633	545
1965	431	1,659	7,159	267	1,968	5,296	86	2,312	2,005
1970	623.2	1,357	8,461.2	423.55	1,377	5,832.7	52.24	2,548	1,332.1
1973	638.3	1,667	10,645.8	549.7	2,055	11,295.6	172.1	2,155	3,709.9
1976	585	1,679	9,822	631	1,748	11,031	141	2,099	2,959
1979	495.9	5,824	26,788.5	390.8	3,800	14,852.9	276	2,945	7,853.7
1981	555.8	5,831	32,409.4	490.3	4,642	22,760.9	259.8	4,618	11,900
1982	513.9	5,926	30,456	462.9	4,929	22,819	312.1	3,876	12,097
1983	417.7	5,500	22,974.5	878.6	4,587	17,367	519	4,200	21,798

자료: 제주도 통계연보

〈표 27〉 채소류 생산량 (Ⅱ)

구분 연도	파			양 파			당 근			고 추			마 늘		
	면적	10a당 수량	수량	면적	10a당 수량	수량	면적	10a당 수량	수량	면적	10a당 수량	수량	면적	10a당 수량	수량
1961	6	1,300	78	125	1,661	2,077	-	-	-	101	199	201	137	759	1,041
1965	21	1,096	237	311	1,875	5,840	-	-	-	26	296	78	157	1,193	1,876
1970	18.67	1,163	210.4	183.17	1,267	2,320.6	4.2	690	29	139.2	83	115.7	202.5	913	1,849.1
1973	34.4	1,013	348.5	203.6	1,923	3,916.4	8.8	617	54.3	213	83	176.7	307.4	703	2,161.7
1976	45	1,035	476	267	2,124	5,670	17	1,000	170	169	95	161	236	698	1,647
1979	73.8	1,661	1,266.2	269	3,306	8,894	85.3	1,354	1,154.8	275	132	337	587.1	1,198	7,033.8
1981	69.4	2,875	1,995	306.4	3,314	10,153	716.7	1,906	13,659	67.6	107	72.4	745	904	6,734
1982	58.5	2,221	1,299	413.1	3,649	15,075	740.6	1,759	13,027	153.2	108	165	838.5	875	7,336
1983	37.4	2,270	849	707	2,821	19,948	1,328	1,900	25,232	114.5	104	119	1,250	992	12,395

자료: 제주도 통계연보

(2) 花卉園藝

施設園藝에 의한 겨울철 花卉類栽培는 서울이나 大都市 近郊農業의 형태로 發展해오다가 油類波動 이후 부터 연료비를 아끼고 生産費를 절약하기 위한 적지로 제주도의 南部地域이 선정되면서 화훼류재배가 성행하고 있고 재배면적도 늘어가는 추세에 있다.

화훼류 재배면적은 다음 〈표 28〉에서 처럼 1978년의 7.1ha에서 1981년에는 36.1ha로 1982년에는 60.12ha로 5년 사이에 8배가량 재배면적이 늘어났으며 앞으로 계속해서 화훼재배면적은 늘어날 전망이다.

〈표 28〉 화훼원에 재배면적

연 도	면 적
1978 년	7.1 ha
1980	27.6 ha
1981	36.1 ha
1982	60.16 ha

자료: 제주도청

4 . 結 論

濟州道地域農業은 60년대 초까지만해도 田作을 중심으로하는 食糧作物 중심의 自給的 農業이 었으나 이 후부터 보다 소득이 높은 特用作物과 柑橘 등을 栽培하는 이윤추구의 商業的 農業으로 전환되었다.

이것은 濟州道地域農業이 자연적 조건이 주는 이점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면서 중앙시장과의 거리에서 오는 불리한 점을 상쇄해 나가면서 특정시기에 있어서 獨占的 供給을 가능케하여 超過利潤을 얻을 수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濟州道地域農業은 성장하고 발전하였으나 70년대 말 부터는 輸入自由化政策으로 인하여 「동·식물류」기름과 주정원료인 타피오카, 당밀 등의 수입으로 제주도의 특용작물재배농가는 상당한 피해를 입게되어 재배면적이 감소 추세에 있으며 감귤 역시 많은 양적 증대와 이에 따른 제반여건의 미흡으로 가격은 계속 하락하여 감귤산업은 沈滯狀態에 있는 실정이다. 반면에 채소류의 재배면적은 확대되고 있으며 서귀포를 중심으로 南部地域에서는 화훼와 시설원예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濟州道地域農業의 構造가 變化하는 것은 農家の 利潤追求, 즉 農家の 所得增大와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앞으로 농가소득증대를 위해서 어떻게 濟州道地域農業의 構造가 改善되어야 할 것이며 比較優位에 따라 어떤 作物들이 地域的으로 경쟁력을 갖고 있고 이를 육성 발전시키기 위한 지역 농업정책은 어떻게 施行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客觀的 統計資料의 分析만으로는 곤란하고 農家の 經營實態에 對한 內面的 分析도 함께 必要하지만 本 研究에서는 既存資料와 行政統計資料에 依存하였으며 얻어진 分析結果에 따라서 濟州道地域農業의 問題해결을 위한 몇가지 方案을 提示해보면 다음과 같다.

1) 農業人口의 지속적인 감소는 1인당 경지면적을 증대시켜 농번기 인력부족을 초래, 영농기술의 과학화 및 영농의 기계화를 통한 生産性的 提高를 지향하게 되면 경지면적이 중농층에 재분배되어 건전한 중농층의 구성비율을 높일 수 있으나 이것은 觀光과 써비스업의 발달과 이들 분야에서의 고용창출에 의한 農業人口가 반드시 흡수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점에서 제주도의 산업정책과 제주도종합개발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2) 食糧作物과 特用作物 栽培面積의 減少에 따라서 이들 作物과 代替시킬 적합한 作物을 辨

리 開發해야만 될 것이며 아직도 衰退型 作物, 고구마, 麥類 등을 재배하는 農家가 상당수가 되고 있어 이들을 成長作物 즉, 꽃, 야채, 과일, 축산 등으로 栽培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農家의 收入을 增加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3) 濟州道地域農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몫을 하는 柑橘價格 安定이 요구되고 있다. 濟州道地域農業의 死活은 柑橘價格이 적정선을 유지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過言은 아닐 것이다. 柑橘價格의 安定을 爲해서는 무엇보다도 加工製品의 開發과 需要를 擴大시켜 10%내외의 加工率을 30% 이상까지 끌어올려야만 한다. 그리고 中만생품종위주에서 품종별 均衡生産을 도모하여 生産량을 조절하고 洪水출하를 막아야 하며 甘藷농가의 合理的 經營이 요구되고 도당국의 甘藷가격을 安定시키겠다는 확고한 의지와 정책적 시행이 오늘날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4) 安定된 채소가격을 유지시켜 나가기 위해서 計劃生産과 아울러 채소원예조합의 必要性과 그 機能提高가 要望되고 있으며 他地方 主產地와의 경쟁에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市場情報機能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5) 花卉 및 施設園藝의 活性化를 위해서 技術교육지원과 금융지원 등 적극적인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겠다.

6) 濟州道の 토양과 지형 등 諸搬與件을 고려하여 濟州道地域農業을 몇 개의 農業團地로 區分하여 大單位 農産物生産團地로 特化시키고 이를 中점 육성하여 앞으로 도래될 外國産農産物과 價格 및 品質面에서 결정해 나갈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7) 兼業農家의 數를 확대시켜 農家의 農業外所得을 증대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參 考 文 獻

1. 濟州道, 濟州道統計年報, 1961 ~ 1984 년
2. 農水産部, 農林統計年報, 1980, 1983 년
3. 韓國銀行濟州支店, 濟州經濟의 實態와 展望, 1978 년
4. 農業協同組合中央會, 農協調查月報, 1982 년 4 월
5. 農業協同組合中央會, 農協의 地域農業綜合開發方向, 1984 년
6. 京鄉新聞社, 思想과 政策, 1985 년 봄호
7. 朴東昂, 農業經濟, 法文社, 1978 년
8. 朱奉圭, 農業經濟理論, 先進文化社, 1980 년
9. 宋丙洛, 韓國經濟論, 博英社, 1984 년
10. 姜志勇, 「濟州道地域農業의 立地區分과 展開方向에 關한 研究」, 高大碩士學位論文, 1980 년
11. Ruttan, Agricultural Development, England, 1978 년
12. Hallett, The Economics of Agricultural Policy, England, 1981 년